

2014년 자녀가 초대하는 성탄절 가족 예배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



2014년 12월21일 주일 오후2시 주님의교회 본당에서는 성탄주일을 맞아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다. 자녀가 초대하는 성탄절 가족 예배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꿈꾸며 기획되었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의 참평화이신지 돌아보기 위해 예수님의 생을 시간

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훑어보도록 준비되었다.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성탄절 절기 행사인 새벽송을 재현하여 어린이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탄절의 기억이 남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교사 찬양대를 통해 교사와 어린이,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가족예배로 드려졌다. 작년까지

성탄발표회는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린이들 공연 중간에 교육목회원 모든 교역자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출연한 영상들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며 모든 순서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 큰 감동을 주었다. 모든

성도가 촛불을 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찬양드리는데 모습 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을 것 같다. 아름다운 눈을 주시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어린 시절 새벽송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따뜻해진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린다.

전보영 목사

온몸으로 버틴 올 한해, 하나님 함께 하셨다

예수친구사역, 세월호, 승진, 왕따, 비전트립..... 격동의 한해였던 2014년을 함께 버틴 성도들의 소회를 함글함글이 물어보았다. 세월호

의 아픔을 가장 큰 사건으로 꼽은 성도들이 많았고, ‘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진의 기쁨을 행복하게 기억하기도 했다. 가까운 분의 소

천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 신나는 수련회를 친구들과 즐겼던 추억과, 왕따를 당했던 서운함이 어우러지

는 한해였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지금까지 말없이 함께 하셨다.

> 관련기사 3면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제3회 생명나눔의 밤 콘서트



12월 16일 밤,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는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주님의교회, 덕수교회, 승리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주최하는 북한결핵어린이 돕기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가 펼쳐졌다.

한국방송 윤인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에는 참여한 교회의 찬양대가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가수 구창모와 탤런트 고아라가 특별출연했다. 마지막은 온 교회 연합 찬양으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연주되었다.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북한어

린이결핵퇴치본부에서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협력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결핵제로운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주변에 확산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관객이 예배당을 득채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연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북한결핵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활용된다.

함줄함줄

교단소식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은혜 넘치길

2014년 성탄절을 맞아 본교단 총회 및 연합기관장들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했다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보>가 보도했다.

본교단 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산하 교회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온 누리에 퍼져 큰 기쁨의 소식으로 성도 한 사람 그리고 온 교회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북한동포, 세월호 참사 가족, 재난과 가난 속에서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한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양병희)도 성탄 메시지를 통해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비판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는 “2014년 한 해, 이 나라에는 결코 역사책에 기록으로만 남겨놓을 수 없는, 지금도 사람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슬픈 일들이 많았다”며 “이 땅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슬픔과 눈물이 마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황수원)는 “우리는 과거에 비하여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되었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우리 의식’ 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을 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기에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아픔이 있다. 이러한 때에 성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줄함줄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8

月曆(월력)에 의한 節氣(절기)중
禧年(희년), 月朔(월삭)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10)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 禧年(희년):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인식시키고 가난한자를 구제하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 수양의 빨(요벨)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 자유를 선포한다하여 “요벨의 해”라고도 한다. 일곱 번째

안식년 다음해 즉 매 오십년마다 지켜졌다.

② 月朔(월삭): 매월 초하루에 새로운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날은 노동이 금지되었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 禧(편안할 안): (복 희, 길할 희): ‘제기, 제단, 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 귀신 기)에 ‘기쁨, 즐거움’의 뜻이 있는 喜(기쁠 희)를 합쳐 ‘신으로부터 기쁨을 받았으니 복이다. 이처럼 복된 것이 길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 年(해 년): ‘곡식의 대명사’ 禾(벼 화)와 ‘뒤엉키다’의 뜻이 있는 𠂔(어그러질 천)을 합쳐 만들어진 耑모양이 변하여 ‘벼가 익어 이삭

이 뒤엉키는 단위기간이 한 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 月(달 월, 세월 월): “상현달 ㄷ로 양의 변형체 丿에 ‘존재, 동작, 상태’를 의미하는 丶(점 주) 두 개를 결합시켜 ‘계수나무와 옥토끼가 있다는 전설의 밝은 천체가 달이다. 이러한 달이 뜨고 지니 가는 것이 세월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 朔(초하루 삭, 북방 삭): “누르는 흙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모양”인 𠂔(거스를 역)에 ‘세월’을 상징하는 月(달 월)을 합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달의 첫째 날이 초하루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함줄함줄

섬기는 손 14



영하 십도 겨울 날씨
남천 경로당 무료 급식소
백여 분 어르신께
따뜻한 점심 드리고
찬물에 손 담가 설거지 하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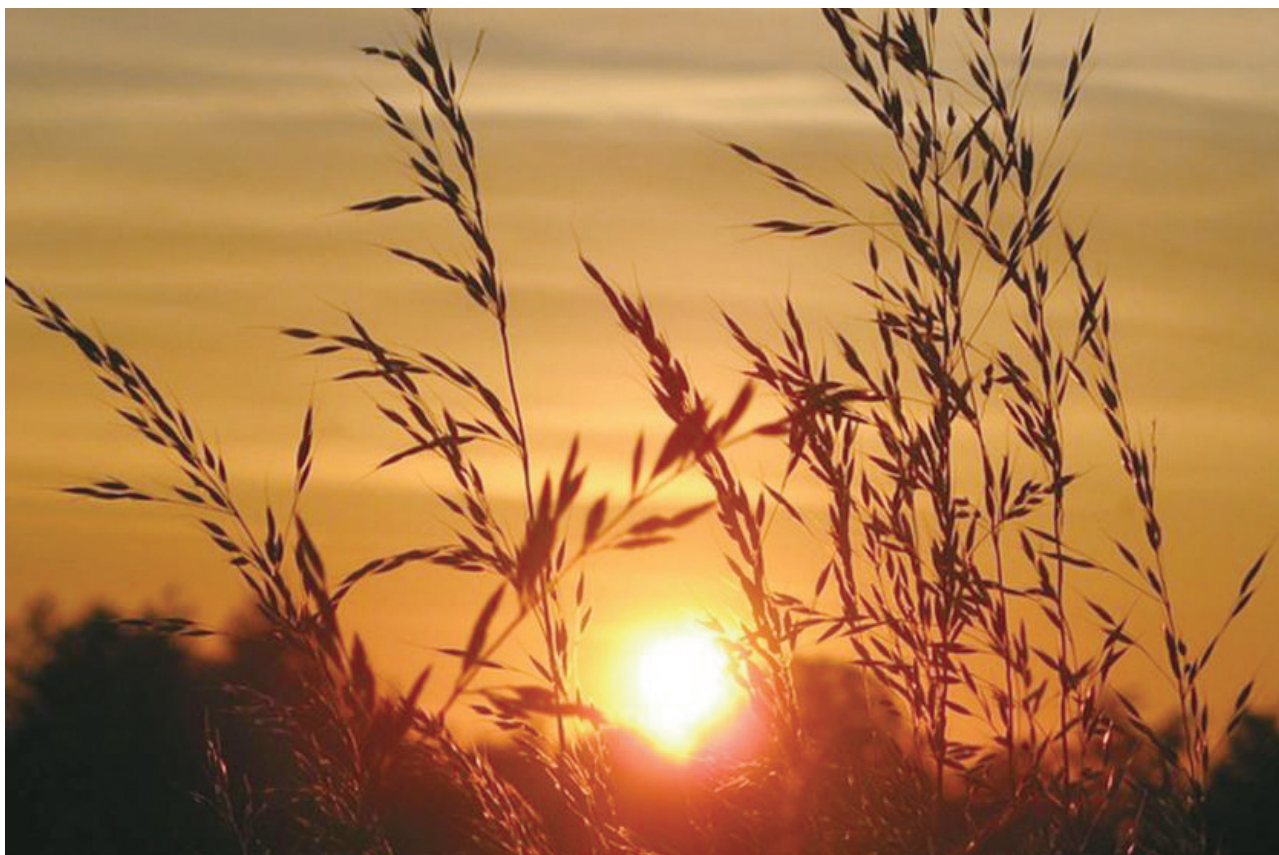
함줄함줄

송년특집

에벤에셀 하나님 함께 하신 2014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이긴 기념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비석입니다. 이 비석이 후에 지명이 되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블레셋은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다시 침범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신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송년호 특집으로, 여러 세대의 성도들에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었습니다.

함글함글



예수친구사역과 12단계 성경공부가 기억에 남는다.

○○○ 집사

2014년 여름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었다. 신나는 물놀이에 재미있는 성경공부, 무엇보다 동네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갔었는데 너희 교회 참 좋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뿌듯했다.

민주원 초등부

회사에서 승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청년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이다. 영문 모르고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면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프실 것이다. 살아 있는 우리는 그들에 대해 빚진 마음으로 2014년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의 귀속 범위를 떠나 이 시대 이 땅의 세대가 범한 죄악의 결과라고들 한다. 특히, 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통렬히 회개하고 인간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정○○ 집사

고3수험생활 동안 힘든 점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교회 목사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주찬 고등부

사역팀 팀장을 맡아서 했던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다.

○○○ 청년부

..12년간 키우던 강아지의 죽음.. 사람에게 대한 죽음 뿐만 아니라 죄악 때문에 만물이 아프고 어려워진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강아지의 죽음 통해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호스피스

준비를 하고 있다.

김경미 권사

교회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스스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기억에 남는다.

○○○ 청년부

학교 반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그 상황과 내가 받은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을 때렸다. ..하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았고 지금도 가끔씩 왕따를 당한다.

김○○ 중등부

나를 온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외할머니의 죽음이 기억에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온몸이 아위고 볼이 패이고 몸이 작아져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과 조그마해지는 시간이 같아져서, 결국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 인생의 동그라미를 다 돌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처음이 가까워진다.

장연수 청년부

베트남 비전트립 중에 모든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은총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집사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았다.

○○○ 청년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주일 차이로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온 가족이 걱정한 일.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 중등부

고등부에 있으면서 처음은 어색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일도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고등부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손성환 고등부

소명을 찾아 하고 싶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해였다. 그 소명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 청년부

친구와 어이없는 말다툼 끝에 한 대 맞았다. 큰 충격이다. 지금까지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되었다.

○○○ 중등부

세월호 사건 때 기독교인들의 연루와 책임을 지탄했는데 손가락이 내게로 돌려졌다. 몹시 괴로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조리와 부정에 침묵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나의 대들보가 너무 컸다.

전종철 안수집사

수능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교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박상민 고등부

제직부서 담당자 확정

2015년 제직 각 부서와 전문위원회를 섬기게 될 항존직 담당이 확정되었다. 아래에 세부 내용을 수록한다.

2015년 제직부서

구분	위원회	간사장로(2014)	간사장로 (2015)	분과위원회	위원장(2014)	위원장 (2015)	교역자 (2014)	교역자(2015)
사 역 위 원 회	목양	김창안	김창안	예배	김성구(1)	손천숙	공광승	유성훈
				음악	김창안(1)	최성준	김용웅	김용웅
				소그룹	지유철(2)	최상인	조정현	조정현
				2030부부	동현수(2)	동현수	문희삼	문희삼
				양육	김유호(2)	박재준	최방은	최방은
	교육	김한중	김한중	미디어	김학원(2)	배익환	장수현	장수현
				어린이	손천숙(2)	지유철	김정형	김정형
				청소년	박대길(2)	조성득	김정형	문은영
				청년(2030)	이용수(1)	이용수	정재상	정재상
				EM	박재준(2)	김유호	존 슈나이더	존 슈나이더
	섬김	김양자	조원호	봉사	강진식(1)	강진식	김대환	김대환
				복지	노봉옥(1)	노봉옥	유성훈	신임목사
				국내선교	조성득(2)	김학원	홍성욱	홍성욱
				문화스포츠선교	장일형(1)	장일형	김용웅	김용웅
				통일선교	정종국(1)	정종국	임창진	임창진
해외선교	박종규(1)	박종순	유기영	신임목사				
부설	국제교육선교센터 (2015년)	박원호	센터운영팀			최상인, 최종명, 박재준, 조성득, 노봉옥, 조광민		
			교육선교연구소			노봉옥, 최봉도, 연구원1명		
			예수친구사역원			최종명, 조광민		
			12단계성경연구원			박재준, 홍성욱		
			청소년사역원			조성득, 문은영		
2014년	당회서기: 조원호		재정위원회: 박종순	감사위원회: 신정웅		선임행정: 공광승		목회기획: 조광민
2015년	당회서기: 박종규		재정위원회: 김성구	감사위원회: 박대길		선임행정: 유성훈		목회기획: 조광민

2015년 전문위원회

구분	위원회 / 센터	위원장	년도	위 원
전 문 위 원 회	기획조정위원회	박원호	2014	조원호, 박종규, 박종순, 박재준, 김성구, 공광승
			2015	박종규, 지유철, 김성구, 박재준, 장일형, 유성훈
	학원협력위원회	조원호 박종규	2014	박종규, 박대길, 손천숙, 교육담당목사
			2015	박대길, 조성득, 노봉옥, 이용수, 교육담당목사
	사무국운영위원회	박원호	2014	조원호, 김한중, 김성구, 지유철, 공광승
			2015	박종규, 정종국, 강진식, 이용수, 최성준, 유성훈
	상례위원회	박종규 장일형	2014	교구상례위원, (배익환 최성준), 조정현
			2015	교구상례위원, (심동욱), 조정현
	인사위원회	박원호	2014	조원호, 김한중, 박종규, 최종명, 지유철
			2015	박종규, 최상인, 박종순, 손천숙, 동현수
	선거관리위원회	김성구 박재준	2014	지유철, 김유호, 유성훈
			2015	김유호, 김학원, 배익환, 임창진
	예산심의위원회	조원호 박원호	2014	김한중, 김창안, 박종규, 박종순, 공광승
			2015	박종규, 김창안, 김한중, 조성득, 김성구, 유성훈
	목회지원위원회	김양자 최상인	2014	신정웅, 조원호, 박재준
			2015	박종규, 박재준, 강진식, 노봉옥
	장학위원회	김한중 김창안	2014	김창안, 조성득, 김학원, (교육담당목사)
			2015	박종순, 정종국, 김유호, 동현수, (교육담당목사)
	요람위원회	최종명 조성득	2014	박종순, 손천숙, 김학원, 조정현
			2015	
	위탁사역운영위원회	조원호 박종규	2014	김양자, 김창안, 동현수, 공광승, (유성훈)
			2015	김창안, 동현수, 배익환, 유성훈, (복지담당)
	사역조정위원회	조원호 박종규	2014	김한중, 박종규, 최종명(인사위원회), 공광승 (은사담당)(14년 안수집사회장)(14년 권사회장)
			2015	김한중, 조원호, 김창안 (인사위원회), 유성훈 (은사담당)(15년 안수집사회장)(15년 권사회장)
	교육공간위원회	조원호 박종규	2014	한윤경, 김완중, 박종규, 박대길, 박재준, 동현수, 공광승, 교육담당목사
			2015	조원호, 김한중, 박재준, 조성득, 유성훈, 교육담당목사
	이단대책위원회		2015	

🌐 해외선교 소식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 3기를 마치고



퍼스펙티브스(관점)는 해외선교분과에서 주관하는 선교훈련으로 그 단어가 의미하듯 성경과 선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훈련들이 있지만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조망함으로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신학자 랄프윈터

박사에 의해 창안된 이래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과정이 개설되었고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2012년 시작하여 올해 3회 째(329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가량 훈련이 진행되었고 약 40여 분의 성도들이 올해 수료 하셨으며 이 분들을 위해 15분의 스태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섬

겨주셨습니다. 선교사역 경험 이 풍부한 선교사들의 강의와 코디네이터의 강의 정리, 양화진 선교사 모역 혹은 이슬람 사원 방문 등을 포함한 조별 특별 활동과 질문지 풀기, 과제물 읽기 등이 12주 동안 이어지며 마지막 주에는 수료를 위한 간략한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이야기, 선교학교, 선교대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교훈련들이 주님의교회 안에 있었지만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그 어떤 선교훈련보다도 심도있고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로 배우게 되는 귀한 기회였다고 말씀하시며 주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손영익 안수집사/해외선교분과

단 소리 쓴 소리

한 울타리 먼 이웃

2014년 성탄에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였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낮아졌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내려갔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낮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다지 우리는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보다 우리는 내려가지도 아니하였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어
겸손히 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예배를 드리며, 후보 뒷면에 나온 글을 보며, 며칠 전 12단계에서의 모습이 생각난다.

강의를 듣기 위해 오신 분들을 위한 빵이 배달되어 빵을 나누어 드리는 봉사자께 정신학원 교문에서 야근하시는 분이 와서 빵 두 개를 부탁했다.

정확한 분량을 준비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에게 빵을 거절하는 모습과 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한울타리지만 아직도 먼 이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2015년에는 먼 울타리지만 가까운 이웃이 되어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 **익명의 성도**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0

소래교회와 정신여학교

우리글로 된 최초의 성경은 1882년 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 Ross)에 의해 번역된 <예수성경누가복음전서>이다. 이 성경 번역을 도운 사람이 의주 청년 서상륜이다. 그는 권서인(勸書人)이 되어 성경책을 가지고 국내에 왔으나 관가에 알려져 동생 서경조와 함께 고향을 떠나 친척이 있는 황해도 소래에 가서 정착했다. 그곳에는 광산 김씨들이 선교 때부터 살고 있었고, 이들에게 기독교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들로 인해 소래마을에는 기독교가 퍼져나갔고 1895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워진 '소래교회'가 만들어졌다..

기독교 선교 초기 기독교가 전파된 이 마을과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회 여학교인 정신여학교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

이 소래마을에서 기독교를 믿는 광산 김씨 가문 중에 김필례와 김마리아가 있었다. 이들은 서울에 와서 장로회 여학교인 정신여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각각 1회 및 4회로 졸업했다. 졸업 후 일본 및 미국에 유학을 하고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근·현대사적으로 볼 때, 장로

회 최초의 여학교인 정신의 역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여성교육사가 되는 셈이다. 일제시대 여성 운동의 두 축이 여성 계몽운동을 전개한 YWCA와 비밀 항일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였고, 이 단체들의 주역은 정신여학교 출신들이었다.



최초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워진 소래교회

김필례는 YWCA를 창립하였고,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이끌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주오챔버, 주오 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



그동안 정기적인 연주봉사 활동을 해 왔던 주오챔버가 주오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되고, 교회 3부 예배에서 매주 연주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4시 주오챔버가 주오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되면서 교회 제직부서로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 박원호 담임목사 외, 담당장로, 주오단원, 살롬찬양대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백성”의 말씀 후, 주오오케스트라 팀장인 유마노 권사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지난 2007년 창립하여, 주로 현악기 위주의 20명 내외, 챔버 규모의

전공,비전공 교인으로 시작한 주오챔버는 그동안 교회내 예배나 행사에서 특별 연주를 하거나, 절기 또는 기념행사때 연주회를 갖는 등 일종의 문화사역의 형태로 활동해 온 바 있다. 세례예식 특별 연주, 교회학교 순회연주, 추수감사주일 로비음악회, 부활절 예배 드라마 연주, 찬양대 칸타타 협주, 크리스마스 축하연주회, 수요일 예배, 송구영신예배 특별연주 등 연간 총 20회 정도의 연주활동을 해 왔다.

‘주오’라는 이름은 ‘주님만을 오직 영화롭게’라는 뜻이다. 주오오케스트라는 약 30명의 단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의 단원 외

에 오케스트라 편성 상 교회 내에서 구하기 힘든 관악 파트 몇 악기 연주자는 외부에서 객원으로 보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역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연주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관심을 보였고, 지원도 있었다. 2015년부터는 주일3부 예배시 예배찬양을 살롬찬양대와 협연할 예정이다.

“매주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년 52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으나, 저희 주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예배를 아름답게 이끌고 연주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부 교인 단원들은 전공, 비전공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헌금인 사례비를 사양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오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유마노 권사의 말이다.

함줄함줄

청년부 대림절 영성훈련과 엔젤트리

청년부에서는 지난 한 달간 대림절을 맞이하여 대림절 영성훈련을 진행했다. 점차 잊혀져가는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예배당을 장식하여 그 의미를 환기시켰고, 매주 예배마다 기도문을 낭독하고 초를 밝히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또한, 청년부에서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름다운꿈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엔젤트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림절 영성훈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모셔들이며,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줄

사역간증

선교 성극 사역을 마치고

11월 30일 여주소망교도소와 12월 7일 보훈병원에 가서 수감자와 환우들에게 예배와 함께 성극을 공연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 전도집회를 방해하는 불량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대원도 있고 바쁜 중에 참여한 대원도 있어 연습이 부족해서 걱정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실수 없이 호흡이 잘 맞았다. 보훈병원에서는 휠체어를 탄 환우들과 보호자들로 자리가 꽉 메어지고 웃음

과 아멘으로 화답해주어 참 은혜로웠다. 여주 소망교도소를 처음으로 간 신입대원은 시작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이유를 물으니, 그분들(수감자)을 보니 눈물이 자꾸 난다고 한다. 그들은 순간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의 찬양과 성극이 수감자 250명 중 50명, 아니 10명, 아니 몇 명이라도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의 사역은 보람이고 기쁨인 것



이다. 우리 성극팀은 미약하지만 또 열심히 연습하여 불우한 곳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손경숙 권사/성극팀 연출**

송년사역간증

예수님 낮은 모습 본받아 섬기는 미시오데이

주님 원하시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를 찾아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위로하기로 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2014년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사역을 되돌아본다. 봄날, 보훈병원의 나라를 위해 다치신 환우들의 위문 찬양예배를 시작으로, 소망 교도소의 갇히고 소외된 형제를 위한 찬양예배, 장애우를 위한 호세아 동산의 위문예배 등 교외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교내의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회, 북한 결핵아동을 위한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행사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먼저 매주 어려운 시간 쪼개가면서 밤늦게 연습에 시간을 할애해 준 대원들. 악보준비에, 간식준비에 성의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봉사자들. 찬양의 질을 위해 열정으로 애쓰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바쁜 가운데도 주님 영광을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해준 열과 성의의 우리 미시오데이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알았기에 순



종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다녀온 선교 찬양을 다시 돌아보면 보훈병원 찬양에서 나눈 주님 사랑. 휠체어에 링거를 달고 참여해 주셔서 기쁨을 나누던 환우들, 소망 교도소에서 열정으로 동참하신 재소자들, 서로 악수로 위로하며 한마음 되던 모습들, 특히 호세아 동산에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율동과 찬양했던 순간들, 찬양 후 장애우들 방에서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나누었던 중보기도의 순간들, 기도 후에 장애우들

의 밝고 환한 모습에서 주님을 만났던 귀한 시간들, 훗날 마음에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고 눈시울 흠친 놀라운 사건들,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일깨워 주신 잊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었다.

교내 행사로 (사) 섬김과 나눔과 같이 이웃사랑 음악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음악회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결핵제로 본부와 같이 4개 교회 찬양팀과 연

합해서 북한 결핵아동 돕기에 사용하여 주심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모두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 인도하심에, 사용하심에 도구가 되길 간절히 원했고,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2015년에는 더 낮은 자세로 모든 약자, 소외된 자, 갇힌 자를 찾아가야겠다. 아끼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황남효** 안수집사/미시오데이

송년사역간증

1부 안내 보면서 보낸 한 해



20대 초반에 가난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 지구를 반 바퀴 돌아서 변화된 한국 땅을 찾은 것은 88년 올림픽을 치르던 해였다. 내가 한국에 와서 임동진 장로님의 도움으로 첫발을 들여놓은 곳은 주님의교회였다.

교회 등록한 것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빠른 것은 세월 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아직도 주님의교회 문지

기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수원이다. 1부 안내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에서 광역버스 1700번 첫차를 타야 교회에 6시30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시30분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때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나에게 소형차가 있다. 그차는 주님의 일을 할 적에 만 사용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에서 핸들을 잡는 횟수는 줄어든다. 지하철에서 내려 교회에 오는 길목에 들어서면 국수를 삶는 특이한 국물 냄새가 정이 들었던 주님의교회라는 것을 냄새로 알려준다. 팀장님은 나보다

일찍 오셔서 분주하게 주보를 나르고, 봉사부에서는 커피 잔들을 움직이는 집사님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하나님 손길을 볼 적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재철 목사님, 임영수 목사님, 문동학 목사님, 박원호 목사님,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나 나름대로 믿음이 성장해왔다. 안내를 보면서 나는 겸손을 배웠고,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따뜻하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주보를 받아 가는 성도님들을 볼 적에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다.

오랫동안 안내를 하다 보니 이제

는 1부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얼굴을 읽을 정도이다. 한 시간 동안 서 있는 그 자리가 길면은 길다. '권사님 수고하신다'라는 그 한마디가 추운 겨울에 내 마음을 녹여준다. 안내를 보다가 얼굴이 보이지 않은 성도님의 소식을 교인들에게 물었을 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적에는 마음이 먹먹해진다. 나도 멀지 않아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주님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실 줄은 나 자신도 모른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지금은 퇴권사로 남아 있지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남고 싶은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드보라 은퇴권사

꼬마인터뷰 | 성탄축하공연의 '천사', 최지현 어린이

주님 안에서 크는 발레 꿈나무

25일 성탄예배에는 소년부의 성탄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별을 들고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천사 역할로 등장했던 발레리나, 열세 살 최지현 어린이를 만났다. 공연 후 성도의 교제 시간에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서울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교우들의 큰 웃음을 자아냈던 터다.

발레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여섯 살 때부터였다. 엄마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시키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도 매일 학교 끝난 뒤 5시부터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3~4학년 때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미래도 불확실해서 그만 둘까 생각했었다는 어른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엄마가 이미 학원비 다 내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바람에 방향을 멈추었다.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다. 가냘픈 몸이지



만 아무거나 잘 먹는다. 발이 평발인데다가 발목 부분에 뺏조각까지 있어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통을 견디며 열심히 노력한 까닭에, 예원학교 콩쿠르 금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콩쿠르 은상, 올해 8월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린 서울국제콩쿠르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상도 많이 받았다. 존경하는 발레리나는 강수진이고,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을 좋아한다. 율전초등학교 6학년이고, 예원중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2015년 <함글함글> 제작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글함글>의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매 2~3주 간격으로 간행됩니다. 인쇄 제작 사양과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 색도, 부수
 - 가로 257mm 세로 364mm, 양면 4도 원색인쇄, 매호 2,000부 발행 기준
- 후가공 - 4면일 때 한번 접지, 6면일 때 두번 접지, 8면일때 한번 접지, 삽지
- 용지 - 미색 재생용지, 현재 한솔 이라이트 80그램 미색 무광 사용중
- 제작 시기 - 2~3주 간격, 금요일 저녁 파일 송고, 익일 오후 3시 이전 납품
- 선정 기준 - 유사업무 수행경력, 품질의 적정성, 업무협조의 용이성, 납기의 준수

2015년부터 <함글함글>의 제작을 맡아주실 협력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사업무 수행경력서, 발행면수별 제작비 견적서의 PDF파일을 2015년 1월 7일까지 hamletter@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시험제작 등 소정의 선정과정을 거쳐 제작 협력업체로 모시겠습니다.

함글함글

교회 단신

2014년 12월 유아세례식

2014년 12월 25일 성탄예배 2부에서 유아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영유아들은 많은 성도와 부모의 축하를 받았다.

고현서 공진서 김 울 김강윤 김수정 김영우 김에서 김예찬 김준서 문다엘 서윤후 서지현 서채은 송주혁 안상은 어승준 오현준 이가윤 이민찬 이상윤 이서현 이하린 임유찬 정소우 지선준 지은우 최재호 현서진 홍라엘 홍은기 황재인

교회 주차 스티커 재발급

교회 주차증이 바뀐다. 사무실에서는 새로 바뀐 교회 출입 주차증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로비에서 발급한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교구,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함글함글



교회사역일정

- | | |
|--------------------|-------------------------|
| 12.31(수): 송구영신예배 | 1.5(월): 정기당회 |
| 1.2(금): 금요기도회 | 1.5(월)~10(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
| 1.4(주): 신년주일, 성찬주일 | |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12월 22일 ~ 1월 11일 휴무)

알립니다

2015년 <함글함글> 기사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글함글> 기사를 모집합니다.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이전에 <함글함글> 기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글함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아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께서 2015년 1월 7일까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 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저희 함글함글 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글함글